

간 내각 출범과 향후 과제

2010.6.8.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8일, 간 나오토 신임 총리(63)는 8일, 각료명단을 발표
 - * 센고쿠 관방장관은 새 정부를 “젊고, 청신(淸新)하며, 일을 좋아하는 내각”이라고 설명
 - * 아사히신문이 6일 발표한 각 정당별 지지율 추이에 따르면 집권 민주당은 33%를 기록하여 5월말 시점보다 13%포인트 상승하였고, 간 나오토 신임 총리에 '기대한다'는 응답이 59%
- 정치자금 문제와 권력집단으로 비판받았던 정치로 국민의 불신을 확대시킨 오자와 前민주당 간사장과 거리를 둔 의원을 요직에게 기용한 것이 특징
-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권의 운명을 좌우하는 참의원 선거임(7월예정). 여당이 참의원 과반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와 민주당의 선거 공약을 재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간 내각의 특징

- 간 나오토 신임 총리는 8일, 6명의 신임 각료를 포함하는 17부처의 각료명단을 발표
 - * 예산재분배로 스타가 된 대만계 일본인 모델·탤런트 출신 렌호(蓮舫) 참의원의원이 행정쇄신상에 취임
 - * 구제역문제로 물러난 아카마쓰 농림수산장관의 후임에는 야마다 마사히코 농림수산부 부장관이 승격

- * 하토야마정권에서 폐지했다가 부활된 민주당 정책조사회의 회장에 겐바 고이치로씨가 공무원 제도개선·출생률 감소 담당 장관으로서 입각
- * 국회가 회기중이기 때문에 하토야마 정권의 연속성을 유지를 위해 오카다 외무장관, 나오시마 경제산업장관 등 11부처의 각료는 유임
- 민주당 간사장에게 에다노 유키오 행정쇄신장관(46), 국회대책위원장에 다루토코 신지 중의원 환경위원장(50), 정책조사사회장에게 겐바 고이치로 중의원 재무금융위원장(46)이 각각 취임
- 오자와 이치로 前간사장과 거리를 둔 유력의원을 기용하고, 「脫 오자와 색」을 강조
 - * 에다노, 겐바 두 사람은 관방장관으로 내정된 센고쿠장관과 함께 오자와 전 간사장에게 거리를 두는 대표적인 의원임
 - * 새 내각은 「脫 오자와」 진용으로 참의원선거에 도전할 계획이지만, 정작 당사자인 오자와 前간사장은 8일, 양원의원 총회에 출석하지 않아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음

□ 간 내각의 과제

- 간 총리는 11일 국회에 출석 소신표명연설을 할 예정이고, 중·참양원 본회의의 각 당대표 질문은 14일부터 실시될 예정임
- 간 총리는 국민신당과 우정개혁법안을 조기에 추진키로 합의했으나, 16일까지의 국회 회기내에 법안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새 집행부는 2주일 정도의 회기연장을 모색하고 있음
 - * 회기가 연장되면 참의원선거 일정이(7월11일 예정) 촉박해지기 때문에 참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향후 주요 정치 일정〉	
【6월】	- 8일 : 간 새 내각 발족 - 16일 : 통상국회 회기 종료

	-25~26일 : 주요국(G8)정상회의(캐나다) -26~27일 : 20개국·지역(G20)정상회의(금융서밋, 캐나다)
【7월】	- 상순 : 참의원선거 공시 - 중·하순 : 참의원 선거 투개표 - 25일 : 참의원회선원의 임기 만료

- 간 내각의 과제는 정권의 운명을 좌우하는 참의원선거의 행방임. 여당이 참의원과반수를 유지할 것인가,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가? 등 문제가 많은 민주당의 선거공약의 재검토도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
- 간 총리는 「발등의 불은 국회대응과 참의원선거를 어떻게 이겨낼지에 달려 있다」고 언급하고, 국회운영과 참의원 선거대책에 전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
- 하토야마 정권이 파탄난 큰 이유도 하토야마 前총리와 오자와 前간사장의 정치자금 문제였기 때문에 깨끗한 이미지로의 전환도 중요한 과제
- 8일 마이니찌신문 사설에서 정권교체와 국민의 신뢰도 저하에 큰 영향을 준 정치자금 문제에 관해서 하토야마 前총리와 오자와 前간사장의 해명이 없는 한 민주당이 정치자금 문제를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보도
- 또, 하토야마 정권과 같이 많은 매니페스토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매니페스토의 집중과 선택이 필요
- 일본 언론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고 「무엇을 우선해야 하고, 무엇을 보류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라는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도

□ 새 내각에 대한 국민의 반응

○ 산케이신문과 FNN(후지TV)의 조사

- 간 나오토 새 총리에게 「기대한다」고 대답한 지지율은 57·3%로, 「기대하지 않는다」의 35·6%을 상회했음
- * 참의원선거의 비례대표 지지율은 민주당이 34·1%로 하토야마 총리의 사임 직전 조사(5월 29~30) 수치인 22·0%보다 12·1% 급상향

○ 공동투쟁통신 조사

- 민주당의 간 대표에게 「기대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57·6%로 5월말 조사한 내각지지율 19·1%보다 대폭 개선
- * 민주당의 지지율도 전회대비 15·6포인트 상승한 36·1%로 자민당의 20·8%을 크게 상회

○ 아사히신문 조사

- 아사히신문이 4~5일 실시한 여론조사는 간 새 총리에게 「기대한다」 59%, 「기대하지 않는다」 33%로 조사
- * 하토야마 前총리의 사임에 따른 전회조사(2~3일) 보다 28% 상승, 자민당의 17%(전회20%)와도 큰 차이를 보임

□ 새 내각 구성에 따른 대사급 인사 예정

○ 주한 일본대사로 무토 마사토시 쿠웨이트 대사를 내정

- 일본정부는 7일, 시게이에 주한 일본대사 후임으로 무토 마사토시 쿠웨이트 대사(61)을 내정
- 무토대사는 외무성 북동아시아 과장이나 한국대사관 공사를 역임하는 등 한국과 인연이 많음
- *무토 대사는 외국 근무지로 한국을 선택하여 3번 근무한 경험이 있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Korean school로 유명
- *요코하마국립대학卒, 하버드대학원卒

- 일본은 무토대사의 기용으로 천안함 사태에 적극 대응 등 한국과의 연계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 목적
- 한국대사는 보통 외무성에서 국장이상을 역임한 간부가 취임하지만, 국장경험이 없는 무토대사의 기용은 이례적임
- 무토씨는 72년에 외무성 입성. 호놀룰루 총영사, 한국 공사를 거쳐, '07.10월부터 쿠웨이트 대사를 맡고 있음

○ 중국 일본대사에 니와 이토츄(伊藤忠) 상담역 취임

- 일본정부는 미야모토 유지 중국대사의 후임으로 니와 우이치로·이토츄 상사 상담역(71)을 기용
- 니와대사는 이토츄상사 회장으로서는 중국과의 무역이나 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 중국정부나 경제계와의 인맥도 풍부
- 외무성에 의하면, 전후 UN 상임이사국 대사에 민간인이 취임한 것은 1950년대 미국대사와 프랑스대사 2명이 유일
- 전후, 중국대사의 민간인기용은 처음이고, 민주당 정권이 표방하는 「탈 관료의존」을 주요국가의 대사인사로 실행
- 니와대사는 62년 나고야대학을 졸업하고, 이토츄상사에 입사. 98년 사장, 2004년 회장, 올해 4월부터 상담역. 한중일의 경제, 정치, 학술분야의 지식인인 모임 「30인회의」의 멤버임

* 신 내각 명단 별첨

* 새 내각 명단

직책	성명(나이)	사진	직책	성명(나이)	사진
총리	간 나오토(63) 衆,10選,도쿄		관방장관 (신임)	센고쿠 요시토(64) 衆,6選,후쿠시마	
총무장관	하라구치 카즈히로(50) 衆,5選,사가		외무장관	오카다 카즈야(56) 衆,7選,미에	
법무장관	치바 게이코(62) 參,4選,가나가와		재무장관 (신임)	노다 요시히코(53) 衆,5選,지바	
문부과학장관	가와бата 다쓰오(65) 衆,8選,시가		후생노동장관	나가쓰마 아키라(49) 衆,4選,도쿄	
농림수산업장관 (신임)	야마다 마사히코(68) 衆,5選,나가사키		경제산업장관	나오시마 마사유키(64) 參,3選,比	
국토교통장관	마에하라 세이지(48) 衆,6選,교토		환경장관	오자와 사키히토(56) 衆,6選,아마나시	
방위청장관	기타자와 도시미(72) 參,3選,나가노		국가공안· 납치문제	나가이 히로시(67) 衆,11選,미에	
금융·우정개혁	가메이 시즈카(73) 衆,11選,히로시마		국가전략소비자 (신임)	아라이 사토시(64) 衆,5選,홋카이도	
행정쇄신장관 (신임)	렌호(42) 參,1選,도쿄		공무원제도 개혁·저출산 (신임)	겐바 고이치로(64) 衆,6選,후쿠시마	